

모리 오가이(森鷗外)의 歴史小説 考察

— 『아베일족』 『사카이사건』 을 중심으로 —

權 泰 敏*

目 次

1. 서론
2. 모리 오가이의 역사소설
3. 무사도 정신과 소설 구성
4. 모리 오가이의 권력과 국가의식
5. 결론

1. 서론

모리오가이(森鷗外)¹⁾는 노기(乃木希典)대장 부부의 순사를 계기로 『오키츠야고에몬의 유서(興津弥五右衛門の遺書)』²⁾를 발표하여 일본 근대 역사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확립했다.

오가이는 20대의 청년시절에 독일에 유학하여 그의 본 전공인 의학 뿐만 아니라 서구의 문학, 철학, 미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섭렵한 서구의 지식을 일본의 근대화에 접속하려고 하였다. 일찍이 사토(佐藤春夫)씨는 오가이의 독일 유학을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일본 낭만주의 문학의 시작」³⁾이라고 하면서 그의 일본문학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 한서대학교, 부교수, 일본근대문학

1) 森鷗外(1862-1922)는 이후 오가이로 표기

2) 森鷗外(1912), 「興津弥五右衛門の遺書」, 『中央公論』 10

3) 佐藤春夫(1949), 「森鷗外のロマンティシズム」, 『群像』. 후에 『森鷗外全集』別卷, 筑摩書房, 1971, p.29 에 收錄.

오가이는 軍医라는 국가체제의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문학자로서의 활동을 전 생애에 걸쳐 전개한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의 창작은 20대의 청춘의 열정에 의해 쓰여진 낭만주의 소설 『舞姫』(『國民之友』1890:明治23) 이후 小倉에의 좌천 노·일 전쟁 종군 등 다방면의 체험을 거치면서 그의 나이 45세(1907: 明治40)에 육군 군의 계통의 최고 지위인 군의총감(육군 중장), 육군성 의무국장이 된 이후 그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이타·섹스아리스』(『スバル』1909:明治42), 『青年』(『スバル』1910:明治43), 『기러기』(『スバル』1911:明治44) 등의 창작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가이의 이와 같은 창작은 1912(明治45:大正1)년 그의 나이 50세에 明治에서 大正이라는 시대의 전환점에서 역사소설이라는 새로운 분야로 나타난다.

『아베일족(阿部一族)』은 『오키츠야고에몬의 유서』의 집필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1913(大正2)년 1월 『中央公論』에 발표된 오가이의 역사소설로서는 두 번째 작품이다. 그리고 『佐橋甚五郎』(『意志』1913:大正2), 『護持院原의 敵討』(『ホトギス』1913:大正2), 『大塩平八郎』(『中央公論』1914:大正3)에 이어 1914(大正3)년 2월 『사카이사건(堺事件)』을 『新小説』에 발표하였다. 모두 봉건시대의 일본의 정신을 주제로 한 작품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베일족』과 『사카이사건』은 봉건시대의 무사도 정신을 오가이 특유의 필체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 근대 역사소설의 전개와 더불어 『아베일족』과 『사카이사건』에 나타난 무사도 정신과 작품을 통해 오가이의 국가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모리 오가이의 역사소설

역사소설(Historical Novel, Roman Historique)이란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하여 역사적 사실의 바탕위에 다시 작가의 문학적 허구가 담겨진 소설을 말한다. 서구의 근대 역사소설은 스콧(Walter Scot)⁴⁾, 빅토르 위고(Hugo Victor-Marie)⁵⁾, 드비니(Alfred de Vigny)⁶⁾, 메리메(Mérimé

4) Walter Scot(1771-1832): 영국의 낭만파 시인 소설가로 『아이반호(Ivanhoe)』, 『탈리스만(Tarisman)』 등의 작품이 있다.

5) Hugo Victor-Marie(1802-1885): 프랑스의 시인, 극작가, 소설가로 대표작으로 『레미제

e)⁷⁾, 듀마(Alexandre Dumas Pére)⁸⁾ 등에 의해 근대 낭만주의 사조에 그 근거를 두고 발전되어 왔다. 그 중에서 드비니는 「역사란 일반 대중이 주인공이 되는 소설」이라고 그의 역사소설론이라고 할 수 있는 『생 마르(Cing-Mars)』⁹⁾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의 「일반 대중」이란 표현은 19세기 초에 눈뜨기 시작한 근대 시민 의식의 각성과 근대 자아의 문제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오가이가 근무지인 육군의 명을 받아 독일에 유학했던 기간은 1884(明治 17)년에서 1888(明治21)년 사이이다. 그의 나이 23세에서 27세에 이르는 서구의 문명을 공부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충만한 한 일본의 청년으로서 「막연한 공명심과 절제에 익숙해진 학구력」¹⁰⁾으로 독일의 대학에서 서구의 지식을 탐독했다.

오가이의 유학시기인 1884년 8월 13일의 일기에 보면

서가위의 책은 이미 170여권에 이른다. 학교가 문 닫아 잠시 한가하다. 손에 닿는 대로 수시로 읽었다.¹¹⁾

고 쓰고 있다. 나카무라씨의 조사에 의하면 오가이가 독일 유학시절에 사서 읽었다는 문학에 관한 책만도 450여권이 넘었다고 한다.¹²⁾ 오가이가 유학했을 당시의 서구는 낭만주의 시대의 말기로 독일에서는 아직 말기의 낭만주의가 유행했던 시기이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1862), 드비니의 『삼총사』(1884), 『몬테크리스토 백작』(1841-1845) 등은 당시에 이미 널리 알려진 소설로 지금으로서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독서를 좋아하는 오가이도 당시에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토(佐藤春夫)씨의 의견대로¹³⁾ 오가이는 독일에서 서구 낭만주의 문학의 세례를 받았을 것이고 그리

라블(Les Misérables)』이 있다.

6) Alfred de Vigny(1797-1893): 프랑스의 시인, 소설가로 『고금시편』, 『숙명』 등의 시집이 있다.

7) Mérimée Prsper(1803-1870): 프랑스의 소설가로 『칼멘(Carmen)』 등의 소설이 있다.

8) Alexandre Dumas Pére(1802-1870): 프랑스의 극작가, 소설가로 『樁姬』 『삼총사』 『몬테크리스토 백작』 등이 있다.

9) Alfred de Vigny, Cing-Mars, Prepase(La Renaissance du livre, Paris), 송백현(1985) 『韓國近代歷史小說研究』, 三知院 p.16 에서 참조

10) 森鷗外(1890), 『舞姬』, 『國民之友』, p.5. 이후 필자의 번역에 의함

11) 森鷗外(1884), 『獨逸日記』, 『鷗外全集』 35, 岩波書店 1975. 1에 의함

12) 中村ちよ(1957), 『下ノソ時代の鷗外の讀書調査』, 『東大比較文学』에 의함

13) 佐藤春夫(1949), 前掲書(3), p.33

고 그러한 문학 사조가 평생 그의 문학의 근간을 이루었으리라 생각한다. 오가이의 독일 유학의 체험은 자아와 예술을 주제로 한 그의 초기 작품 「독일 삼부작」¹⁴⁾을 위시해서 낭만주의 문학에 속하는 만년의 역사소설에 이르기 까지 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舞姫』의 주인공 오타(太田豊太郎)가 고민한 근대적 자아의 문제는 그의 후기작품 역사소설 『아베일족』과 『사카이사건』의 주인공에게서도 비록 무사도라는 봉건적 가치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자세는 오가이가 평생 고민한 자아의 다른 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오가이의 두 번째 역사소설 『아베일족』은 翁草의 「阿部茶事談」을史料로 하고 있다. 翁草는 오가이가 小倉에 근무하고 있을 때 수집한 사료이다.¹⁵⁾ 그는 역사소설의 집필은 노기대장 부부의 순사가 그 계기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그 준비가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역사문학의 계보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古事記』(712), 『日本書紀』(720) 등의 역사서에서 출발하여 「榮花物語」(1030-1100년 경), 『大鏡』(平安시대 후기), 『平家物語』(1240년 경), 『曾我物語』(1338-1411년 경), 『太平記』(14세기 후반), 『義経記』(1411년 경), 『信長記』(1596-1615년 경), 『太閤記』(1633년 경) 등에 이어진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쓰보우치(坪内逍遙)¹⁶⁾가 『小説神髓』(1885:明治18)로 대표되는 신문학운동의 일환으로 논문 「우리나라의 사극(わが国の史劇)」(1893:明治26)을 발표하면서 일본의 전통 연극인 카부키를 통해 새로운 史劇을 개량하였다.

그후 본격적인 근대 역사소설은 大正시대에 들어와서 오가이에 의해 발표되었다. 기쿠지(菊池寛)씨가 오가이의 역사소설을 일컬어 「일본에서 최초로 근대소설의 수법으로 역사소설을 썼다」¹⁷⁾고 말한 것 같이 오가이는 그의 역사소설의 첫 작품인 『오키츠야고에몬의 유서』를 발표함으로써 일본 근대 역사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확립했다. 오가이의 역사소설 이전에도

14) 오가이가 귀국후 독일 유학체험을 토대로 집필한 3작품 『舞姫』, 『うたかたの記』 『文づかひ』

15) 藤本千鶴子(1972), 「鷗外『阿部一族』の主資料『阿部茶事談』の性格」, 『近世近代のことばと文学』, 第一学習社

16) 坪内逍遙(1859-1935)는 와세다(早稲田)대학 교수로 「早稲田文学」을 발간했으며, 「小説神髓」, 「わが国の史劇」등을 통해 신문학, 신카부키 운동을 전개했다. 셰익스피어 연구와 번역에 노력하였으며 소설로는 「当世書生氣質」이 있다.

17) 菊池寛(1922), 「文豪森林太郎」, 『新小説』8, 春陽堂, p.27

야마지(山路愛山), 후쿠모토(福本日南), 츠키하라(塚原渋柿園), 헤키(碧瑠璃園) 등의 작품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소설이 발표되었으나, 구성과 인물묘사, 문학성 등에서 그 대표성을 띠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 후 오가이의 영향을 받은 아쿠타가와(芥川竜之介), 기쿠치(菊池寛), 시마자키(島崎藤村) 등의 작가에 의해 계승 발전되어 오늘날 수 많은 역사소설이 발표되어 소설의 한 장르를 이루었다.

그러면 여기서 오가이의 역사소설에 나타난 특징을 몇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첫째로 오가이는 역사소설의 집필에 있어 자료에 충실했다는 것이다.

『아베일족』은 翁草의 「阿部茶事談」¹⁸⁾을 史料로 하고 있다. 史料 「阿部茶事談」이 소설 『아베일족』에 번역에 가까울 정도로 인용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오가타(尾形佯)씨에 의해 자세히 조사되어 있다. 오가타씨는 그의 논문 「鷗外歴史小説の史料と方法 — 『興津弥五右衛門の遺書』 『阿部一族』 —」에서¹⁹⁾, 오노(大野健二)씨의 「森鷗外『阿部一族』の史料と加除訂正の問題」를 참고하면서 「忠興公御三代殉死之面々(殉死録)」과의 관계, 細川本 「阿部茶事談」과의 대조등을 조사해, 소설 『아베일족』은 「阿部茶事談」과 구성은 물론, 주류를 벗어난 삼화적 기사까지 일치한다고 논했다.

『사카이사건』의 집필에 있어서는 오가이가 사사키(佐々木甲象)著 『泉州 堺列挙始末』²⁰⁾을 史料로 사용했음이 이나카키(稲垣達郎)씨에 의해 자세히 조사되어 있다. 이나카키씨는 원자료 『泉州 堺列挙始末』과 소설 『사카이사건』을 세밀히 대비 조사하여 오가이가 소설 『사카이사건』의 집필에 있어 다소의 자료 항목의 이동, 또는 사건의 단순화는 있지만 등장인물의 묘사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상세하게 역사에 벗어나지 않게 원자료에 충실했음을 밝히고 있다.

두 번째로는 오가이의 역사소설은 테마소설이라는 점이다.

오가이의 역사소설을 시대 배경 순서로 나열하면 『佐橋甚五郎』가 元龜, 天正 그리고 에도시대 초기(1570-1592)이고 『오키츠야고에몬의 유서』,

18) 수필집 翁草에 수록. 소장본이 많음.

19) 尾形佯(1962), 「鷗外歴史小説の史料と方法 — 『興津弥五右衛門の遺書』 『阿部一族』 —」, 『東京教育大学文学部紀要国文学漢文学論叢』, 東京教育大学

20) 東京大学所蔵鷗外文庫에 佐々木甲象著 『泉州 堺列挙始末』(1893: 明治26 출판)이 있다.

『아베일족』이 에도시대의 寛永연대(1624-1644), 『護持院原의 敵討』, 『大塩平八郎』가 天保연대(1830-1844) 그리고 『사카이사건』이 마지막으로 에도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明治 1년이 된다. 오가이는 에도시대 초기에서 마지막까지를 망라해서 미요시(三好行雄)씨²¹⁾가 지적하듯이 일관되게 시대의 정신인 무사도를 테마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베일족』, 『사카이사건』은 무사들의 생사를 가르는 할복 행위가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다.

세 번째로 오자키(尾崎秀樹)씨가 지적하듯이²²⁾ 역사를 현대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연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가의 감정이 배제되고 자료를 나열하듯이 자연스럽고 리얼하지만 인물형상의 면면이 배경의 자연스런 흐름에서 독자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는 듯한 방법이다.

다음은 심리소설이라는 점이다.

후지모토(藤本千鶴子)씨는 『아베일족』이 정치소설적인 소재가 개인적, 심리적 소설로 작가의 의도대로 변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²³⁾ 『사카이사건』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면이 일체 배제되고 할복에 임하는 병사들의 자세를 양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이 오가이의 역사소설은 지배자보다는 비록 무사계급이긴 하지만 피지배 계급인 하급 무사들의 면면을 묘사했다는 점이나 그 묘사 방법의 치밀함과 그리고 역사 사료에 충실했다는 점 등에서 근대 역사소설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대 배경 및 소재의 설정만을 가지고 역사소설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으나 역사의 본질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역시 오가이의 「역사소설」, 「史伝소설」이 역사소설의 모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무사도 정신과 소설 구성

봉건시대의 무사도는 계급이나 그 씨족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한 수단으로 생성되어 이데올로기화 되었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는 鎌倉시대에

21) 竹盛天雄(1977), 『森鷗外』, 学生社, p.220

22) 尾崎秀樹(1990), 『歴史文学夜話』 講談社, p.19

23) 藤本千鶴子(1972), 前掲 書15)

서 전국시대에 걸쳐 무사들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그러한 가치관은 근세 徳川막부의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무사도는 忠과 勇, 義을 강조하여 죽는 자리를 찾는 것이 무사의 길로 인식되어 왔으며 죽음보다는 명예를 중요시하는 일본이라는 독특한 시대 환경속에서 생성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그것은 보편적인 인간의 삶을 초월한다는 인간의 생사관으로 까지 전개되었다고 생각된다.

오가이의 역사소설 『아베일족』, 『사카이사건』은 그러한 봉건 무사들의 드라마이다.

역사소설 『아베일족』의 구성을 살펴보자.

1. 주군 호소카와 타다토시(細川忠利)의 죽음과 殉死者들의 面々
2. 순사를 허락받지 못한 아베 야이치에몬의 죽음과 그의 장남 곤베의 처형
3. 아베가의 토벌

『아베일족』의 구성은 이와같이 크게 세 항목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아베일족』에 등장하는 무사들은 소설집 『意志』²⁵⁾의 제목이 상징하듯이 어떤 형태로든 무사로서의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 있다. 『아베일족』의 무대는 1641(寛永18:辛巳)년 봄, 肥後国(熊本県)에서 주군(主君) 호소카와 타다토시(細川忠利)가 参勤²⁶⁾의 임무로 에도(江戸)로 출발하려는 즈음 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다. 주군 타다토시 생전에 은혜를 입었던 18인의 家臣들이 그의 허가를 얻어 차례로 순사한다. 그러나 당연히 순사 할 것으로 알았던 아베 야이치에몬은 그가 간절히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군의 허가를 얻지못해 새로운 藩主 미츠히사(光尚)에게 봉사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주위에서는 비난이 쏟아진다. 무사의 명예를 존중하는 아베 야이치에몬으로서의 참지 못하고 무사로서 당당한 할복을 한다. 다음은 아베 야이치에몬이 자식들을 모아놓고 할복하려는 장면이다.

아버지 야이치에몬은 웃었다. 「그럴 것이다. 눈 앞에 것만 아는 소인배와는 상대하지 말거라. 그런데 죽지않을 꺼라고 하는 내가 죽는다면, 허락을 받지않고 죽은 자의 자식이라고 너희들을 알보는 자도 있을 것이다. 나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운이다. 도리가 없지. 치욕을 받을 때에는 같이 받아라. 형제들끼리 싸움하지 말거라. 자 표주박으로 배를 가르는 것을 잘 보거라」하고 야이

24) 久保田芳太郎(1975), 「近世武家の生死観」, 『解釈と鑑賞』1, 至文堂, p.44

25) 『阿部一族』은 1913년 1월 『中央公論』에 발표된 후 『興津弥五右衛門の遺書』, 『佐橋甚五郎』와 같이 역사소설집 『意志』(叻山書店, 1913)에 수록되어 간행되었다.

26) 参勤交代를 말하는 것으로 에도시대 徳川幕府가 영주(大名)들을 통제하기 위해 일정한 간(1년)을 에도와 영지에 교대로 거주하게 하는 제도이다.

치에몬은 자식들 앞에서 할복을 하고 자신의 목줄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고 죽었다. 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었던 다섯명의 자식들은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동안 불안했던 마음에서 한발 물러나 무거운 짐 하나가 내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²⁷⁾

아베 야이치에몬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물이 아니다. 주군에게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지만 순사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무 죄도 없이
주위로부터 혐담을 듣는다. 의지로서 부끄럽지않게 살아온 아베 야이치에
몬은 무사로서의 수치를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이 허락을 받지 않고 죽으면
자식들에게도 불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택한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식들과 웃음으로 화답하는 것이나, 아버지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
는 자식들의 모습이나 오늘날의 상식으로서의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리고 이후 주군의 아베가의 토벌이 있을 때, 아무 죄도 없었지만 그 자식
들과 가족들은 담담하게 당연한 것처럼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다.

아베 일족의 비극의 원인은 첫째 주군 타다토시(細川忠利)가 아베 야이치
에몬에게 순사를 허락하지 않음에 있다. 아베 야이치에몬이 성심껏 주군을
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군 타다토시는 성격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서 후계자 미즈히사에게 봉사해달라는 말을 하면서 끝내 순사를 허락하지
않았다. 소설 공간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주군 타다토시의 죽음에 있어
한갓 미물인 매 조차도 순사를 하는데 충애를 입었던 아베 야이치에몬으로
서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두 번째는 타다토시의 1주기 제례식에서의 아베가의 장남 곤베의 상속에
관한 불만에 대해, 새 주군 미즈히사의 적절치 못한 대응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아베일족』에는 義와 忠으로 무사로서의 명예를 지킬려는 쓰카
모토(柄本又七郎), 타케우치(竹内数馬) 그리고 주인공 아베 야이치에몬과
같은 인물도 있지만 권력자를 쫓아서 음모를 꾸미는 하야시(林外記)같은
인물도 등장한다. 하야시는 새 주군인 미즈히사에게 아베가의 장남 곤베의
상속을 방해하는 책략을 써서 결국은 아베 일족이 멸망하는 결과로 이끈
다. 미즈히사는 아베 야이치에몬을 순사자로 인정했으면서도 측근 하야시
의 말을 듣고 그 후계자인 곤베에게 마땅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그로
인한 곤베의 반발에 자신의 실수를 알면서도 권력자의 의지로 아베일족을
멸족시키고 만다. 타다토시, 미즈히사 모두 봉건체제에서의 절대권력자이

27) 森鷗外(1913), 「安部一族」, 『森鷗外全集』3, 筑摩書房, 1971 수록 p.122

다. 『아베일족』의 주인공 아베 야이치에몬은 이러한 절대권력에 희생된 의지가 강한 무사이다. 그리고 그의 일족도 권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무사로서의 명예를 위해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아베가의 토벌 부분은 소설의 상당부분을 할애해서 忠과 義로 무사로서의 명예를 지킬려는 쓰카모토(柄本又七郎), 타케우치(竹内数馬)의 활약상과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아베일족의 의기있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아베일족의 멸망에 이르는 참혹하다고 할 정도의 세밀한 묘사는 「阿部茶事談」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오가이는 「권력의 횡포」라는 주제를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베일족』의 史料 「阿部茶事談」에는 곧베의 행위를 불충이라고 비판한데 반하여 『아베일족』의 소설 공간에서는 무사의 명예를 중히 여기는 곧베의 심리로 보아서 그럴 수 밖에 없는 처지로 독자에게 제시하고 있다.²⁸⁾ 그리고 오가이가 설정한 소설 공간 안에는 주군, 또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용기 그리고 의리로 무장된 무사들의 양양한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다음은 『사카이사건』의 구성을 살펴보자.

1. 프랑스군의 상륙과 도사번 병사들의 처지
2. 도사번 병사들의 할복에 임하는 자세
3. 살아남은 병사들의 대우

『사카이사건』의 구성은 위의 세 항목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베일족』이 戰国時代 무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에도시대 초기를 무대로 하였다면 『사카이사건』은 봉건시대인 에도시대에서 근대 明治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을 무대로 하고 있다. 1868년 明治유신이 일어났던 해이므로 아직 開國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시절이었다. 2월 15일 저녁 무렵 사카이에 프랑스 해군이 상륙했다. 사카이를 경비중이던 도사번의 보병대장 미노우라 이노키치(箕浦猪之吉) 등은 이들을 그들의 배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돌발사태로 전개되어 프랑스 병사 13명이 죽게 된다. 이 사건은 국제문제로 비화되어 프랑스 측의 요구로 손해배상과 함께 프랑스와 충돌한 병사들을 대장 미노우라를 비롯해 20명을 처형하게 된다. 그들의 처형은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억울하다는 병사들의 호소로 인해 무사로서 명예롭게 죽을 수 있게 할복으로 정한다. 할복은 무사도 정신의 극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보병대장 미노우라의 할복 장면이다.

28) 拙稿(2001), 「森鷗外의 『阿部一族』論」, 『日本文化学報』第 10 輯 韓国 日本文化学会, pp.292-295

「프랑스인들은 들으라! 나는 네놈들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니다. 황국을 위해 죽는 것이다. 일본 사내 대장부의 할복을 잘 봐 두어라!」

미노우라는 말을 마치고 옷을 열어 젖힌후 단도를 반대편 손에 쥐어서 왼쪽 옆구리에 깊이 꽂아 그대로 세 치정도를 내리더니 오른쪽으로 쓱 긁고는 다시 세 치가량 훑어 내렸다. 칼날이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벤 자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미노우라는 단도를 버리고 오른손을 칼로 그은 상처속에 집어넣고 창자를 끄집어 내며 프랑스인을 뚫어지게 쏘아 보았다.²⁹⁾

오가이는 이러한 끔찍한 장면을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이 자세하게 묘사했다. 할복에 임하는 병사들은 그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의 고통과도 당당하게 맞서려고 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죽는다는가, 무사로서의 명예가 주어진다라는 것만으로 죽음에 임해 조금도 두려움 없이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할복을 앞두고 있는 다른 병사들은 평소처럼 담소를 나누다든지 하며 무사로서의 긍지와 기개가 넘쳐나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묘사는 등장인물들을 기록을 하듯이 나열하는 독특한 방법과 더불어 독자가 역사의 현장을 보는 것과 같은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오가이가 의도했다고 생각되는 일본 전통의 무사도 정신이 더욱 독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사카이사건』의 소설 공간속의 분위기는 병사들의 국가를 위해 죽는다는 의식과 攘夷의 자세, 그리고 무사로서의 의리를 지키려는 양양한 모습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소설 『사카이사건』은 史料 『泉州 堺列举始末』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들을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빠짐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인명록을 보고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한 작품이다. 維新당시의 사카이사건은, 당시 明治정부는 王政復古로 외국과의 관계를 친밀히 하려던 시기였으므로 서구 제국과의 친선을 유지하기 위해 원래 정치적인 입장에서 해결된 사건이다.³⁰⁾ 그러나 소설 『사카이사건』은 오가이에 의해 史料 『泉州 堺列举始末』에서도 조금은 묘사되었던 정치적인 사정마저도 일체 배제되고 병사들의 당당한 무사도 정신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泉州 堺列举始末』에는 병사들의 약속한 무사로서의 명예도 지켜주지 못하는데 대한 분노가 표출되어 있는데 비해 오가이의 소설 『사카이사건』은 그러한 병사들의 감정이 배제되어 있다. 오직 攘夷라는 명제로 국가에 대한 애국

29) 森鷗外(1914), 『堺事件』, 前掲書(27), p.216

30) 山崎一穎(1981), 『森鷗外・歴史小説研究』, 桜楓社, p.138

심과 무사로서의 명예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버려져 있는 역사속의 불모지의 사람들을 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아베일족』, 『사카이사건』은 오가이의 다른 역사소설에 비해 할복이 묘사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사도 정신의 극치를 보여 주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오가이는 어째서 에도시대의 무사도 정신을 통해 『아베일족』에서는 「권력」의 문제를, 『사카이 사건』에서는 「攘夷」의 문제를 그 주제로 삼았던 것일까?

4. 모리 오가이의 권력과 국가의식

오가이는 20대의 청춘시대에 입신출세라는 가문의 기대와 일본의 근대화라는 사명을 띠고 국가적 요청에 의해 독일에 유학한 명치시대의 지식인이다. 그는 『舞姫』의 주인공 오타(太田豊太郎)와 같이 서구 독일에서 근대 자아를 체험하고 귀국후 자신만을 믿고 멀리 독일에서 일본까지 따라온 연인, 에리제를 스스로 돌려보내야만 하는 일본의 현실에 좌절했다. 그의 그러한 경험은 明治정부의 원로인 니시아마네(西周)³¹⁾의 주선으로 문벌 아카마쓰(赤松)家(해군중장 赤松則良)의 장녀 토시코(登志子)와의 결혼을 파기함으로써 스스로 니시아마네 등이 속해 있던 明治정부내의 권력의 공동체와 충돌한다. 그리고 새로운 자기인식을 통해 일본사회에 계몽으로 공헌하려고 하였다.³²⁾ 오가이는 『妄想』(1911:明治44)에서 보듯이 「일본에서 열린 학술의 과실」이 언젠가는 「구라파에 수출」³³⁾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또 그러한 각오로 귀국했으리라 생각한다.

오가이는 그의 나이 45세(1907:明治40)에 입신출세라는 가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육군 군의계통의 최고 지위인 군의총감이 되었다. 그는 군인이라는 신분과 육군이라는 체제 안에서 근대국가 건설에 참여하면서, 그의 초기 작품 『舞姫』에서도 읽을 수 있는 것 같이 아직 미성숙된 일본사회

31) 森鷗外와 동향인 쓰와노(津和野)사람으로 네델란드에 유학해서 서양철학을 일본에 소개했으며 明六社를 창시한 계몽사상가로 막부의 명으로 만국공법을 번역하고 근대 육군창설에 공헌했다.

32) 拙稿(1997), 「森鷗外の『舞姫』考察」, 『日本文化学報』第3輯 韓国 日本文化学会

33) 森鷗外(1911), 『妄想』, 『森鷗外全集』2, 筑摩書房, 1971 수록, p129

에서 행해지는 권력의 횡포와 관료주의, 그리고 국가라는 문제로 끊임없이 고뇌했다. 1910(明治43)년 明治시대 말기 서구의 자본주의가 발전됨에 따라 민주화의 요구가 거세지는 와중에 일어난 大逆사건³⁴⁾을 오가이는 어떠한 눈으로 보았을까? 독일 유학을 통해 서구 합리주의 사상을 몸에 익힌 지식인 오가이의 고뇌는 그의 문학으로서 표출할 수 밖에 없었다. 오가이는 『침묵의 탑(沈黙の塔)』³⁵⁾에서 국가 관료의 입장에서 무정부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지만, 사상과 예술을 탄압하는 국가 권력의 횡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표출했다. 자유로운 사상과 종교가 구속되는 사회, 그러한 明治사회에 대해 「독일 대학의 자유를 논」 했던 지식인 오가이로서는 당연한 것이었다.³⁶⁾

『舞姫』는 明治정부의 관료조직에 대한 비판³⁷⁾, 그리고 이후에 발표된 그의 초기작품 『우타카타노記(うたかたの記)』(『しがらみ草紙』1890: 明治23)는 절대권력에 대한 좌절을 주제로 하였으며³⁸⁾ 그 후의 작품 『후미즈카이(文づかひ)』(『新著百種』1891: 明治24)는 인습을 극복하려는 자기확립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³⁹⁾ 그리고 그의 만년의 작품 역사소설 『아베일족』에서도 권력의 횡포를 그 주제로 하고 있다.

오가이의 국가의식은 독일 유학시대의 나우만과의 논쟁에 잘 나타나 있다. 나우만은 1875(明治8)년 明治정부의 초청으로 동경대학에서 초창기 일본 지질학계에 큰 업적을 남긴 독일의 지질학자이다. 그는 귀국후 일본을 문화가 미개하다는 내용으로 서구에 소개했다. 그의 일본관은 당시 서구 문명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는 서구 지식인 사회에서의 평균적인 인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가이는 「새로운 국가 일본은 아직 세상에 익숙지 않아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게는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⁴⁰⁾라고 나우만과 논쟁할 정도로 투철한 국가

34) 大逆사건은 1910(明治43)년 5월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에 대한 明治정부의 탄압사건이다. 이른바 幸徳사건이라고도 하며 明治왕의 암살을 계획했다는 명목으로 26명이 대역죄로 기소되어 이듬해 1월 幸徳秋水 등 12명이 처형되었다. 幸徳秋水는 高知県사람으로 万朝報 기자로서 러일전쟁에 반대했으며 이후 平民新聞을 창간, 그후 미국에 다녀온후 무정부주의자로 활약하다가 大逆사건의 주역으로 처형되었다.

35) 森鷗外(1910), 「沈黙の塔」, 『三田文學』 11

36) 前掲書(32), p.275

37) 前掲書(32), p.286

38) 拙稿(1997), 「森鷗外の 『우타카타노記』 考察」, 『日本文化學報』 第 4輯, 韓国日本文化学会

39) 拙稿(1999), 「森鷗外の 『후미즈카이』 論」, 『日本文化學報』 第 6輯, 韓国日本文化学会

관을 가지고 있었다. 오가이는 이후 이시쿠로(石黒忠憲)를 수행해서 국제적 삽자회의에서 애국적인 활약을 보였다. 그의 이와 같은 애국적인 행동을 야마자키(山崎国紀)씨는 오가이의 어린시절 공부했던 요로칸(養老館)의 국풍적인 학풍에서 배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⁴¹⁾

대역사건 이후, 大正(1912-1926)시대로 들어오면서 明治시대와는 달리 1914(大正3)년 1월에는 시멘스(シーメン스)사건⁴²⁾ 등으로 시민들이 내각 탄핵을 주도하는 등, 국력이 커지면서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 국외에서는 중국의 청나라가 孫文을 중심으로 중화민국(1912:大正1)으로 다시 나고, 중국과 러시아의 조약 체결(1913:大正2), 서구에서는 발칸전쟁(1912-1913) 발발 등, 국내외적으로 시대가 급변해 갔다. 육군 군의 총감이라는 권력의 위치에 있는 오가이로서는 그러한 시대 상황에 무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오가이는 「이기적 개인주의」⁴³⁾가 나쁘다고 주장하는, 평생을 국가를 위해 봉사한 明治시대의 관료 지식인이었다. 그러한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역사소설 『사카이사건』은 발표되었다.

『사카이사건』은 무사도 정신에 의해 국가에 소멸되는 병사 개개인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일본은 아직 서구에 비해 뒤떨어져 있으며 攘夷의 사상에서 그렇게 멀리 와 있지 않다. 국가가 잘못되면 거기에 소멸되는 개인의 희생은 어디에서 보상받는가라는 명제가 역사소설 『사카이사건』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카이사건』은 오가이에 있어 국가의 재확립을 주장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1912(大正1)년 9월 13일 명치왕의 장례식날 일어난 노기대장 부부의 순사 사건은 작품의 소재를 역사에서 찾은 역사소설이라는 오가이 문학의 새로운 분출구를 찾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시의 오가이는 문학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다는 의식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의 역사를 소재로한 작품과 그리고 역사소설론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 그대로와 역사에서 벗어남(歴史其佸と歴史離れ)」(1915:大正4)⁴⁴⁾은 그후 오늘날까지 역사

40) 森鷗外(1887), 「日本の実情-再論」, 生松敬三(1976) 『森鷗外』 東京大学出版会, pp.60-61 에서 재인용

41) 森鷗外(1989) 『森鷗外-基層的論究』 八木書店, pp.3-4

島根県 津和野의 藩学인 養老館은 당시의 国学者 大國隆 正의 国학정신에 의해 운영되어 서구의 새로운 학문과 함께 国풍적인 학풍을 가지고 있었다.

42) 일본에 있는 독일의 시멘스(シーメン스)회사가 고위층에 뇌물을 준 사건으로 당시의 山本 権兵衛 내각이 인책 사퇴되었다.

43) 森鷗外(1910), 「青年」, 『昴』, 前掲書(33), p.129

44) 森鷗外(1915), 「歴史其佸と歴史離れ」, 『心の花』 1

소설 집필에 있어서 한 모델같이 인용되어 일본 근대 역사소설의 방향이 설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지모토씨는 『아베일족』을 「정치적 드라마가 개인적 심리적 소설」로 되었다고 논했다.⁴⁵⁾ 오가타(尾形侑)씨는 역사소설 『아베일족』을 「봉건 사회에 있어서 절대권력과 개인의 자아와의 대립」이라고 분석했다.⁴⁶⁾ 오가타씨의 견해는 「명치왕으로 상징되는 절대권력과 개인의 근대적 자아」라는 오가이 개인의 문제에 비추어 볼 때 필자도 찬성하는 바이다. 『아베일족』뿐만 아니라 『사카이사건』에서도 오가이가 설정한 권력과 거기에 대응하는 인간 개인의 의지가 작품 전반에 걸쳐 내포되어 있다. 다만 『사카이사건』에서는 권력이라는 문제에서 攘夷라는 국가의식의 문제로 바뀌었을 뿐이다. 또 『아베일족』, 『사카이사건』 두 작품 모두 시대의 전환 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한 사건인데, 오가이에 의해 봉건시대 일본의 정신인 무사도 정신만이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하겠다.

5. 결론

일본의 근대 역사소설의 출발은 독일 유학을 통해 배양된 오가이의 문학적 소양과 명치왕의 장례식 날에 행해진 노기대장의 순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가이는 역사소설의 집필에 있어 역사적 사료에 충실하면서도 정작 작품의 구도에서는 사건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배제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아베일족』, 『사카이사건』에서는 일본의 전통 무사도 정신과 무사도 정신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할복하는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다. 오가이의 역사소설은 미요시(三好行雄)씨가 지적하듯이 테마소설이다. 『아베일족』, 『사카이사건』 두 작품 모두 오가이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과 「국가」라는 테마에 충실하다.

大逆사건이후 사회의 질서가 흔들리며 大正시대를 맞이한 오가이로서는 국가의 보전과 발전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은 아직 서구에 비해 뒤떨어져 있으며 전시대의 가치인 무사정신과 攘夷의 사상에서 그렇게 멀

45) 前掲書(15)

46) 前掲書(19)

리와 있지 않다라는 주장과 권력이 잘못되면 거기에 따르는 개인의 희생이 얼마나 무모한가를 그의 역사소설 『아베일족』, 『사카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오가이는 평생을 절대주의 국가의 고급군인 신분으로 살아오면서 「근대 합리주의적 이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또한 국가의식이 뚜렷한 일본의 국가 관료 지식인이었다. 殉死라는 미화된 봉건사상과 권력의 과오에 소멸되는 인간 개인의 파멸은 오가이의 사상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역사소설 『아베일족』, 『사카이 사건』은 독일에 유학하고 明治정부에 의탁하여 국가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오가이의 그러한 국가의식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参考文献】

- 權泰敏(2001), 「森鷗外の『阿部一族』論」, 『日本文化学報』第10輯, 韓国日本文化学報
- 山崎国紀(1989) 『森鷗外 - 基層的論究 - 』, 八木書店
- 長谷川泉(1966) 「森鷗外の歴史小説と史伝」, 『国文学 - 解釈と教材の研究 - 』, 学灯社
- 藤本千鶴子(1972) 「鷗外『阿部一族』の主資料『阿部茶事談』の性格」, 『近世近代のことばと文学』, 第一学習社
- 蒲生芳郎(1983) 『鷗外の歴史小説 - その詩と真実 - 』, 春秋社
- 佐佐木雅彦(1986) 『鷗外と漱石 - 終わらない言葉 - 』, 三弥井書店
- 須田喜代次(1990) 「阿部一族」, 『鷗外の文学世界』, 新典社
- 高橋義高(1985) 『森鷗外』, 新潮社
- 長谷川泉(1974) 『鷗外文学の位相』, 明治書院
- 尾崎秀樹(1976) 『歴史文学論-変革期の視座』, 勁草書院
- 生松敬三(1976) 『森鷗外』, 東京大学出版会
- 尾形仂(1979) 『森鷗外の歴史小説-資料と方法』, 筑摩書房
- 蒲生芳郎(1979) 「『界事件』論覚え書-大岡昇平氏の『界事件』論をめぐって-」, 『森鷗外Ⅱ』有精堂 所収
- 小堀桂一郎(1981) 『鷗外とその周辺』, 明治書院
- 山崎一穎(1981) 『森鷗外・歴史小説研究』, 桜楓社

- 小泉浩一郎(1981) 『森鷗外論 実証と批評』, 明治書院
竹森天雄(1984) 『鷗外その紋様』, 小沢書店
稲垣達郎(1989) 『森鷗外の歴史小説』, 岩波書店
山崎国紀(1992) 『鷗外 森林太郎』, 人文書院

K C I

要 旨

日本の歴史小説の出発はドイツ留学で養った森鷗外の文学的素養と乃木大将の殉死から始まる。森鷗外の歴史小説の『安部一族』、『堺事件』には日本の伝統の武士道精神が描写されている。そして、森鷗外の精神ともいえる「権力」と「国家」というテーマに充実している共通点がみえる。森鷗外は、平生を絶対主義の国家体系の中で高級軍人の身分として生きてきた。大逆事件以後社会の秩序が揺れていく。大正時代を迎えた森鷗外は西欧の個人主義的な立場を認めながらも国家の保全と発展、そして伝統的思想の維持を求めている。日本はまだ弱い。西欧の文化をもっと勉強しなければならない。明治維新の時代の武士道精神と攘夷の思想を忘れてはいけない。歴史小説の『安部一族』、『堺事件』は権力と社会のモラルが間違えれば個人の犠牲は大きいと訴える作品だと思う。また、森鷗外の国家意識がわかる作品だと思うのである。

キーワード : 歴史小説 国家 権力 個人 伝統的思想 武士道精神

투 고 : 2006. 8. 31
1차 심사 : 2006. 9. 9
2차 심사 : 2006. 9. 30

住 所 : (340-924)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시랑리 309
電 話 : 041-660-1234, 010-5555-1615
e-mail : taemin@hanseo.ac.kr